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7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5호

장애인복지 평가 5년 연속 '우수'

한국장총, 전국 17개 시·도 대상 ... 제주 종합평가서 65.54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하는 전국 17개 시·도 대상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5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5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시·도의원 등이 발표한 '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 등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제주, 대전, 광주는 5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는 총 5개 영역 40개 지표가 기준이 됐다. 제주도는 종합평가에서 대전(66.91점)에 이어 65.54점을 받아, 전

국평균 48.7점을 크게 앞섰다. 내용을 항목 별로 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제주도는 67.6점으로 경기도(79.67점)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55만5000원(전국평균 22만3315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 제주도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 분야에서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액 부분 '우수', 장애인 1인당 의료비지원액 '우수'를 받았으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율,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제주도는 최고점인 80.3점을 받았다.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5개 지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영역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등의 지표가 기준이 됐다.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부문에서는 대전과 제주가 5년 연속 우수, 또한 서울, 대구, 충청도 함께 우수 지자체에 포함됐다. 한편, 이 부문의 전국평균은 44.41점으로 작년 49.13점 보다 낮았으며, 지역 간 편차는 더 컸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개관

혁신도시에... 산남지역 노인복지 발전 기대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귀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재경)이 지난 5월 31일 서귀포시 혁신도시 바람모루공원 내에서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사진>

이날 개관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어르신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킷기(풍물), 칠십리악단 공연, 민요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은 복리후생사업으로 경로식당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바둑교실, 영어, 중국어, 서예, 탁구, 실버요가·체조 등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 3층으로 신축된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1층(경로식당, 정보화교육실, 건강증진실), 2층(사무실, 상담실, 장기·바둑실, 프로그램실), 3층(대강당, 탁구실)로 구성됐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서귀포시 지역에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노인복지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것"이라며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문의: 738-3566



결승전의 시작, '점프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한라육관에서 치러졌다. 제주휠체어농구단은 결승전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서울 휠체어농구단에 57:52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지면소개

종합 2~3면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 급증

사회복지소식 4~5면
"장애인 차별 심각, 문제 의식 가져야"

기획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5)

특집 8면
사회복지인권사랑방 1주년 기념 좌담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인권
관련
교육

• 사회복지시설방문 인권교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가족)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변호사 또는 담당 직원이 응대)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 급증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시민의식 향상 효과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 판정 사례는 2.5배 늘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07건으로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2배 늘었고, 입건된 사례는 25건으로 지난해 10건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112로 신고하라는 대대적 홍보, 신고의무자의 확대 및 신고

의식 확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아동학생 신고건수를 보면 △2011년 264건 △2012년 292건 △2013년 374건 △2014년 625건 △2015년 467건이다.

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2011년 154건 △2012년 145건 △2013년 137건 △2014년 288건 △2015년 250건으로, 2014년 특례법이 시행된 후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학대 유형으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0%이상이며, 어린이집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미미했다. 또한 학대 판정 사례에서는 중복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

예방을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민간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체계 강화, 학대 발견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과 매월 1회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성호(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및 시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우리 기관은 훈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신고의무자 교육·홍보 등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2015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심사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한정화)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세입 결산 총 규모는 543억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8.27%로 나타났다. 이는 도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7.1%보다 높은 것이다. 세출 결산 결과, 지출액은 9593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8.72%로 수준이

었다.

이월액은 1011억원, 불용액은 208억원으로 1.9%의 비율로 나타났다. 도전체 세출예산 대비 불용비율 5.6%보다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안전위는 사회적약자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 Tip&Talk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

7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제19회 제주수화경연대회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다'	•참가부문: 수화노래, 수화연설, 수화연등 등 수화로 표현하는 공연 •참가자격: 제주주민 누구나 (참가자 자원봉사 8시간 인정)	접수: 7.11(월)까지 개최: 8.27(토)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743-39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자원개발과정Ⅲ-비영리단체와 기업 •강사: 김영채(제주애기업협의회 이사)	7.5(화) 14시~18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702-3784
		•SPSS를 활용한 설문지 작성부터 분석, 보고서 활용까지 •강사: 송장희(한국경영술루션 이사)	7.7(목)~8(금) 2회 교육 1일차 14시~18시 2일차 10시~17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사례관리전문가양성과정-사례컨퍼런스 •강사: 조현순(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김성천(중앙대학교 교수)	7.18(월) 14시~17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치매야 놀자" 여름방학 1일 캠프	•치매이해 동영상교육 •VR치매가상현실체험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사업 관련 홍보영상 상영	7.22(금) 10:00~16:00 제주대학교 병원	717-292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6월 기탁 현황

▲(주)금강축산유통=돈육 152kg ▲(주)에스에이치유통=간식류 58봉 ▲금강수산물유통=수산물 40kg ▲김만덕기념관=쌀 500kg ▲개인기탁자(김순희)=콩나물 43kg ▲꽃비나리는뜨락=떡 315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519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5,465개 ▲서문식품=두부 269모 ▲암양농조조합법인=빵 117봉 ▲유진상사=오투기식품 2,356개 ▲이든이네=건밀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148봉 ▲제주보리촌=보리빵 509개 ▲갯어클락=식빵 26봉 ▲파리마켓 동광초점=빵 276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97개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349봉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4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930,000	930,000
복지사업후원	995,000	3,902,630
푸드마켓후원	3,393,184	107,33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고경운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지역자활센터 2곳, 최우수기관 선정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서... 수놓음·일터나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획득... 전국 10% 포함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했다. 도농형으로 분류된 지역자활센터 53개소 가운데서도 상위 10%(5개소) 이내에 오른 성과이다.

이번 평가는 지역자활센터 성과 8개 지표 항목

을 기준으로 공동지표와 특성화지표별 사업실적에 대해 실시됐다. 구체적 평가항목으로는 △자활성과(취·창업률, 탈수급률, 취업유지율) △자활사업단 운영(사업단 수익·매출액 등) △자활기업 실적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센터운영 전반 등 공동지표와 외부자원 후원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는 2013년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 올해에는 '최우수기관'에, 서귀포일터나

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는 '2015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현판이 제공되며, 인증서 수여, 장관표창 우선권, 직원의 국내외 선진지 방문,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한편,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0년 설립돼 13명의 직원이 5개의 자활기업과 15개 자활사업단에서 273명의 자활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설립돼 7명의 직원이 6개의 자활기업과 7개의 자활사업단에서 73명의 자활참여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회원 시설 우수근무자 해외연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 일대를 돌아보는 '사회복지 시설 우수 근무자 해외연수 사업'을 실시했다.<사진>

도협의회 회원시설 중 우수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수근무자 해외연수'는 올해로 2회째를 맞으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협의회는 회원 시설 근무자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근무 의욕 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마련해 오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각 직능단체 별 추천자 등 17명이 중국 상해, 계림, 양삭 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4개 기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지사장 김종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양예홍),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영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14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 기관들은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주요협력 분야는 △사회 서비스에 연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연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사업의 정책 발전 △부패없는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장애인 예능발표회·작품전시회 개최

장애인들의 꿈과 자활의욕을 심어주기 위한 '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가 지난 달 8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열렸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이흥기)가 주관한 이날 행사

에는 도내 28개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시설종사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들의 숨은 재능과 예술적인 끼를 마음껏 선보이는 축제의 자리로 13개 시설의 예능발표회, 1년간 시설에서 준비한 작품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루씨손 아프리카 꽃피다 프로젝트 수익금 전달

루씨손(본명 손빛나) 작가는 지난 달 21일 월드비전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경휴)를 통해 월드비전 꿈꾸는 학교 아프리카 니제르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아프리카 꽃피다 프로젝트' 수익금 21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신혼여행을 계기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며 시작됐다. 루씨손 작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로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카페 소다공에서 오프라인 전시회 열었고, 클라우드 펀



딩 방식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익금을 모금했다.

루씨손 작가는 "아프리카의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꽃처럼 밝게 웃던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면 이 세상의 불균형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기부데이&나눔 뜻자리' 이웃사랑 물품전달



제주중앙여자중학교(교장 김상철)는 지난 달 9일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식품, 생활용품 등 약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기부물품은 '기부데이' 주간을 정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동참으로 모여졌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나들이 행사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27일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이주여성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에는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종진)가 일부 비용을 후원하고, 지사 소속 봉사자들도 나들이 봉사에 동참했다.<사진>

김봉한 관장은 "앞으로 제주도내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소외된 노인



들과 다문화가정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나들이 행사를 제공해 문화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 심각, 문제 의식 가져야”

17일 도협의회에서 김형식 UN장애인권리위원 특강



“아직도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으며,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자들은 이런 문제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과 사회복지’ 강연에서 김형식 UN장애

인권리위원은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사진〉

강연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장애인 권리의 실현과 권리 옹호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형식 교수는 “현재 전세계 70억 인구 중 약 7억명이 장애인이며, 이 중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심각한 것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는 상담, 입장 대변,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옹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도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 옹호의 관점이 ‘욕구기반’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권리기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관이 정부지정 서비스 대행, 표준화된 서비스 등의 ‘현실적기관(Operational)’의 역할이 많으나, 앞으로는 인권보장, 인권침해 예방센터 등과 같은 ‘옹호중심기관(Advocacy)’의 역할도 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보·자립 기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 지난달 개원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가 지난달 16일 개원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희망나래활동센터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대안적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고자 문을 열었다.〈사진〉

특히 희망나래활동센터는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줄

여주고 아울러 가정의 경제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작업 활동 훈련을 통해 이용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영열 이사장은 “협동조합 운영방식에 따라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해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자립해 지역사회 공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꼬라지오’ 문 열다

(Coraggio, 힘내)

천지연폭포, 외돌개 등이 멀지 않은 제주 올레길7-1코스 인근. 중증장애인 6명을 바리스타로 채용해 운영하는, 꿈앤카페 꼬라지오(Coraggio)가 지난달 16일 문을 열었다.〈사진〉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에코소랑(원장 박경숙)’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카페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 받았다.

카페 이름인 ‘꼬라지오’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라는 뜻의 ‘Coraggio avanti(꼬



라지오 아반티’)에서 착안한 것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카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영되며 음료 가격을 아메리카

노 2500원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보다 30%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한 카페에는 에코소랑에서 생산한 발효과실원액에이드, 과일빙수 등의 메뉴도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빈)는 지난달 14일 협의회 소회의실에서 ‘민간복지자원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자원(문화, 물품, 재능, 서비스 등)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화북동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복지자원 제공에 있어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동화구연 지도사 3급 과정 운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반딧불이작은도서관(관장 강철남)은 제주작은도서관협회, (사)색동회제주지부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동화구연 지도사 3급’ 과정을 진행했다.〈사진〉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한 ‘동화구연 지도사 3급’ 과정은 동화구연기법과 동화구연화술을 익혀 동화를 들려주게 함으로써 아이



들을 참되게 자라도록 이끌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은 지

난 2014년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모은 책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자 조성됐다.

폴포츠와 함께하는 콘서트 ‘호응’

해정원 아가의집(시설장 박두현) 이용자 강정우(자폐성 지적장애 1급) 씨가 지난달 26일 제주영송학교에서 열린 ‘폴포츠와 함께하는 휴머니티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쳤다.〈사진〉

JDC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 ‘미래의 폴포츠’라 불리는 강정우 씨는 손으로 박자를 짚으며 맑은 음색을



뽐내, 세계적 성악가 폴포츠를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 소/식/마/당

개원 5주년 감사미사·기념식 열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정숙 수녀)는 지난달 23일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개원 5주년을 축하하는 감사미사 및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 센터관계자들은 시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밝게 성장하는 주간보호센터가 될 것을 다짐했다.

‘섬마을 선생님’ 우도 찾아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유근)와 재능나눔봉사단은 지난달 22일 우도면을 찾아 ‘섬마을 선생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도면 체육관 일대에서 진행된 봉사에는 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 실무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거주 어르신들에게 의료·이미용·주거환경개선·스포츠맛사지, 음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청소년 경제학습 현장체험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장애청소년 경제학습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25가구, 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활동은 지난달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일대 시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시장마다 특색있는 삶의 현장을 체험하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법인대표자협회, 임원 전원 재임



(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 대표자협회(회장 임말시아)는 지난달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을 모시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의 전임임원의 재임이 결정됐다. 임원 일동은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발전과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마련 행사 열려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4일 저소득층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희망공간 ‘여기서 만나장’ 행사를 개최했다.

바자회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기증한 생활용품, 의류, 식품 등이 판매됐다. 특히 행사는 유관기관 및 일도2동 적십자봉사단, 관광대·한라대 사회복지과 대학생들 등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라 새마을금고 봉사단과 나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나눔요양원(원장 김옥순)은 지난 5월 27일 한라새마을금고 봉사단과 함께 한림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나들이 프로그램에는 22명의 어르신들이 한림공원 관람, 흥겨운 민요한마당 등에 참여하며 봄기운 가득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한라새마을금고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이미용, 공연, 노력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리 일대서 사회공헌활동 펼쳐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이 애월읍장애인자원협의회(회장 임길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애월읍 수산리 일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농촌 일손돕기(5개 농가), 무료 진료, 김장김치 나눔(100가정), 침구류 전달(10가정), 된장·간장 전달(10가정), 주거환경개선(4가정) 등으로 진행됐다.

리사무장 역량개발교육 진행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제주시 서부지역 리사무장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리더십 개발을 통한 역량개발교육 및 나눔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리사무장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이 프로젝트는 스피치 및 프리젠테이션, 시민복지 및 행정교육, 성장워크숍 및 성장나눔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온새미로 ‘마음모꼬지’ 프로그램



온새미로(우리동네, 늘푸른, 봉아름, 용담, 이호) 연합 지역아동센터는 2016복권기금 심리정서지원사업 ‘마음 모꼬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을 진행해 가정을 둘러싼 지역사회공동체와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풀배터리 검사, 자아인식 프로그램 등 등에 올해 말까지 10회차의 수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EM 비누 만들기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 직업재활팀 이용자와 교사가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함께 만들어요! EM비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11:00~12:00)마다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직접 EM비누를 만들기를 비롯해 그 성분과 재료의 효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거주인 자기권리 결정 향상 프로그램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거주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권리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거주인들과 매월 회의를 통해 하고 자신이 싶은 활동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외부 강사를 초빙해 거주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 교육과 함께, 활동보조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집단상담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박미란 센터장)는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역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가족이 달라졌어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매주 화요일 10회기로 참여하며, 별칭짓기, 가족나무 그리기, 가계도를 통한 가족이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시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에 부쳐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제주에서 대규모 인권유린의 현대사는 4·3이라 할 것이다. 공식 집계 1만 4천 여명이 희생된 민중수난에 대해故노무현대통령은 제주를 직접 찾아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극우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을 부정한 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다.

4·3을 아직도 이념적 대립 구도에서 보는 이들이다. 4·3은 제주공동체를 여지없이 파괴하였고 ‘연좌제’ 등 인권유린의 상처는 후손에 와서도 진행형이다.

90년대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주개발의 후유증은 정점에 있다. 개발을 위한 포크레

인은 한라산 중턱까지 와 있고 투기성 자본은 미친 땅값과 집값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은 후대에게 빌려 써야하는 천혜환경을 순식간에 파괴함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실례로 연동 국적불명의 ‘바오젠 거리’의 원자영업자들은 외지자본의 임대료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쫓겨 나갔고 제주 청년들은 자기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집세로 날리고 있다.

인권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최소 사람으로서 생존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절대명제 하에 진행한 개발독점과 시장자유주의 개방기제는 탐욕가의 배를 채우고 제주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작금 제주사회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4·3 인권유린의 역사를 넘어서서 평화의 섬으로 제주사회가 천착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제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운영원리

로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권력으로 대변되는 행정력도 인권의 기초 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개발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구성원 권리 간 충돌지점도 인권의 가치 하에 조정되어야 한다.

제주사회, 인권사회로 나아가야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가 제정되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이 주도한 이 조례는 당파를 넘어서서 41명의 의원 중 26명이 발의에 동참하였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념 갈등과 제주개발의 폐해를 자각하여 제주사회가 인권사회로 가야한다는 여망이라고 평가한다.

원희룡 지사도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붙였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제주사회운영원리 전환을 위해 도민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칼럼

인구이동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1960년대는 농경시대가 끝자락을 드리우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절이었다. 부푼 꿈에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서울로 향하던, 도시인구집중의 서막을 알리던 때였다. 당시

전국인구는 2900만여 명, 그중 수도권인구는 680여만 명이였다.

그 후 수도권은 지방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드리며 인구집중을 가속화했다. 이제 수도권은 직장, 교육, 문화시설의 복합기능과 인프라 집중으로, 전국인구 40% 이상 거주하는 높은 인구밀집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1천만 명 넘는 인구를 계속 유지하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탈 서울인구가 늘면서 요즘에야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취학과 취직 등을 위한 탈脫 지방러시는 농어촌지역을 공동화시켰다. 숨 막힐 듯 과밀화된 도시는 주택,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공해 등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불확실성 미래 철저한 대책 세워야

제주는 어떤가.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있다. 이제 이 말은 옛말이 되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965년 33만여 명이던 인구가 2016년 말 쯤 66만 명이 될 것이라 한다. 이는 관광산업의 호조, 기업과 국제학교 유치 등 정책적 유인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의 조화 때문이라라.

제주하면 선비들의 귀양지, 우마방목이나 연상되던 변방의 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이전, 귀농귀촌, 은퇴 후 제2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주로 오고 있다. 유수의 관광지,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살기 좋은 약속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늘면 지역사회 생활패턴과 문화, 경제활동이 급속히 변모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인구 100만 명이 더욱 바람직하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용량초과문제들이 발생한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환경문제 등이다. 환경용량 초과에 대한 원인자부담 부여와 부동산값 상승 억제 등을 위한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인구유입현상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중산간, 꽃자왈 등 환경이 파괴되고 교통난이 가중되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주거난이 가중된다면 누가 제주로 올 것인가. 위정자와 행정가들은 인구이동으로 달라지는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이를 실행할 계획을 잘 세워야할 때이다.

기고

아름다운 꽃 청년장애인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황상혁

사회적기업 일배움터 사회복지사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 여름 솜사탕처럼 피어난 수국이 다른 색 옷을 입은 모습이 아름답고, 길어진 해가 퇴근한 길가에는 저녁 가로등 불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웅기종기 가득 모여 피어있는 도로변 화단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도로화단에 피어 있는 꽃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페츨

니아, 사피니아, 메리골드, 팬지, 송엽국, 꽃양배추, 가자니아 등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이름도 낯선 꽃들을 키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배움터 원예사업단 청년장애인들입니다.

일배움터 청년장애인들은 꽃씨를 뿌리고 가꾸고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과 정성으로 핀 꽃을 도로화단에 심고 있었고 바우젠거리, 렛츠런파크, 연동, 아라동, 삼도이동, 삼양동, 화북동, 봉개동, 일도이동 제주시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의 도로화단 초화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후 직원들과 청년장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등록되어 2016년 제주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생산·판매 시스템을 마련했고 품질 경쟁력도 갖추어 도·소매 화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도이동 국수문화의거리에 꽃을 직접 심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꽃을 보면 한번쯤 떠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의 꽃들은 청년장애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피어난 것을 말입니다.

꽃이 이름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든 그 누군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배움터 청년장애인들의 열정과 보람입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⑥



박희순 전 천사의집원장



“6·25전쟁 피난민 물결 속
부모 잃은 아이들 모두
데려오지 못한 것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아파요”

1925년 인천에서 태어난 박 원장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의 배우자는 이미 인천에서 ‘천사보육원’ 원장을 하고 있던 김운용씨. “지금 생각해 보면 고아들을 보살피던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남편은 제 삶의 은인이죠”

그 후 6·25 전쟁이 발발해 다시 하루하루 가슴 졸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던 중 1951년 1·4후퇴로 인해 피란길에 오르게 된다. “피란민 물결 속에 아이들을 챙긴다고 했겠지만 뿔뿔히 흩어져 결국 20명의 아이들만 배를 타게 됐어요. 지금도 그 당시 다 데리고 오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어요”

며칠 동안 바다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 공포 속에 시달리던 피난민들이 도착한 곳은 제주도 성산포. 다행히도 혼자 사는 할머니의 초가집 마당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천사보육원’과 제주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제주에 안정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도일주를 나선 남편 김

“갈 곳 잃은 아이들과 함께 50년 외길 보람”

1953년 ‘천사보육원’ 문열어… ‘중간의 집’, ‘첼로교육’ 도 탄생시켜

저 마다의 사연으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된 어린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키우는 일은 지금 이 시기에도 분명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시기에 부모 잃은 아이들을 제 목숨처럼 지키고 키워 온 이들의 마음을 감히 가늠할 수 있을까. 한 평생을 남다른 사명감으로 날개에 상처입은 어린 천사들을 위해 살아 온 박희순 ‘천사의 집’ 전 원장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다섯 번째 인물로 만나보았다.

운용씨는 “모슬포가 우리가 살 곳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모슬포에는 당시 육군 제1훈련소가 주둔하고 있어 군인들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 김운용 씨는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천사보육원’은 1953년 9월 모슬포에 둥지를 틀게 된다. 비록 판자때기로 열기설기 지어진 집이었지만 보육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6·25 전쟁과 4·3사건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급기야 아이들이 1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1960년대 김운용 초대 원장(뒷줄 왼쪽서 세 번째)과 박희순 전 원장(오른쪽 끝)의 가족사진

전쟁이 끝나자 고아원에 대한 주위의 관심도 조금씩 생겨났다. 부인회에서 찾아오고 면사무소에서도 도움 일이 없는지 물어왔다. 마당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싶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나와 손님들의 손을 잡으며 반가움을 표했다. 사람도 반갑지만 그들이 갖고 온 쌀과 선물이 더 반가웠던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자기들을 찾아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120명의 아이들의 밥을 하루 3번씩 뜨다보면 나무주걱이 얼마 못가 닳아버렸어요. 그래서 쇠주걱을 사용했어요. 당시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배식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매번 직접 떠줘야 했어요. 그 덕분에 평생 어깨가 아프답니다” 박 원장에게 있어서 아픈 어깨는 평생을 어린 고아들을 위해 살아 온 훈장이

나 다름없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험난한 시기를 이겨내고 아이들의 삶을 위해 큰 꿈을 펼쳐보려 할때쯤 평생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남편 김운용씨가 생을 마감(1965년)하고 박 원장이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천사의 집’ 원장을 맡게 된다. “늘 큰 나무처럼 버텨주던 남편의 부재는 큰 시련이었어요. 그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찌겠어요. 빨리 털고 일어서야지”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는 문제에 어느정도 큰 부담을 덜게되자 박 원장은 늘 가슴 한 켠에 부담으로만 자리했던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된다. 퇴소 이후에 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거처가 마땅치 않아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자립형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동모금회에 제안하여 아이들이 대학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의 집’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제각각의 이유와 사연들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말 못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첼로교육’을 시작한다. “제주 시립교향악단 단원이라는 청년이 천사의집에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쳐 줬어요. 첼로라는 악기가 쉽게 접해보기 어려운 악기인데 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첼로에 흥미를 갖게 되었죠” ‘엔젤첼로 앙상블’은 그렇게 당시 제주 시립교향악단의 김원택 단원과 박 원장의 인연으로 탄생하게 되고 ‘천사의 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된다.

자신의 삶 보다는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 온 그에게 후회해 본 적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들 입히고 먹이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말쑥도 피우지 않고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줘서 저는 정말 편하게 아이들

키웠다 생각해요”

지금 ‘천사의 집’은 박 원장의 딸인 김성숙 원장이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터라 선뜻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줄 알았는데 하나 뿐인 딸이 나서서 운영해 보겠다 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지금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지요”



▲ 1993년 14회 만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는 박희순 전 원장 모습(사진 가운데)

사회복지현장에서 선배들의 길을 좇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 사회복지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세상은 느리지만 점점 바르게 나아지고 있거든요”라며 말을 아낀다.

모슬포의 모실은 모래, 개는 갯가를 말한다. 모슬포 바람에는 모래가 섞여 날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슬포를 ‘뭍쓸 바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뭍쓸포’가 한국전쟁 때는 한술 더 떠서 ‘뭇살포’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 이런 모슬포 땅에 천사들의 행렬을 이끌고 찾아와 천사의 기운을 뿌리내린 박 원장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그의 말 처럼 ‘느리지만 점점 바르게 나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정리·김성건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행복하려면,
종사자부터 행복해야”

최현 교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종사자가 피해 받았을 때
도움줄 구제 수단 없어”

최만제 사무국장 세화요양원



“사회적 신뢰 뿐 아니라,
시설 내 신뢰 쌓는 것 중요”

이상구 사무국장 제주보육원



“내부고발자 지원해 줄
역할 맡아주길 기대”

이응범 사무국장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인권 사랑방 운영방향
‘권리·조정·치료’로 가야”

김경미 소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사회복지인권사랑방 공동주최 지상 좌담회

“제주 사회복지현장 인권 침해 지원체계 구축 절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위원장 고관용, 이하 인권사랑방)이 개소 1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인권사랑방의 운영 방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좌담에는 좌장에 최현(제주대) 교수, 패널에 최만제(세화요양원), 이응범(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상구(제주보육원) 사무국장,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편집자주>

최현: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최만제: 최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노인시설인 경우 시설입소 어르신들의 등급에 따른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소규모시설인 경우 현실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소규모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응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태인 경우 생활폭력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폭력은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가해지는 행위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인이 도전적행동, 과잉행동 등의 행위를 할 때 등짝을 때리거나 위협적인 언어사용, 강압적인 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돌봄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행사라고 변명하는 부분이다. 이를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현: 최근 종사자의 인권침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이상구: 최근 ‘사회복지인권사랑방’에서 개최한 종사자 인권워크숍에 참석한 적 있다. 워크숍에서 종사자의 인권침해가 시설 내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각 시설에 알려주는 것도 필

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김경미: 여성시설은 폭력피해여성을 돕는 기관들이 많다. 그런데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노출되어, 가해자인 남편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응범: 종사자인권보호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생활지도사를 공격해서 생활지도사가 다 치거나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거주인들로부터 종사자가 폭행당했을 때,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가 생기면 시설에서는 100% 참으라고만 한다.

최현: 이런 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최만제: 보호자, 종사자, 입소어르신 모두가 협력하는 평등한 개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고, 인권문제가 거론된다. 첫째로 보호자에 의한 경우 요양원에 자주 찾아오는 보호자는 시설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쩌다 한번씩 찾아오는 보호자는 상황인식은 물론 요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서비스제공자를 ‘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입소어르신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폭력성이 심한 어르신을 보호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입소 시켰을 때,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인권침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김경미: 신뢰가 없어진 것 같다. 매스컴에 이슈가 되면, 보호자들이 종사자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마음

을 굳히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믿고 사는 사회의 구조가 안된 것이라 본다.

이상구: 사회적 신뢰 뿐 아니라, 시설 구성원 간 신뢰도 중요하다. 종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묵인되고,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응범: 장애인시설 등에서는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해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난다. 제주지역처럼 작은 지역에서는 내부고발자가 금방 확인되고 현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다. 내부고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내부고발에 앞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상구: 사회복지시설 내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리자와 일반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직장문화가 아닌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직장문화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현: 이용자들이 행복하려면, 종사자가 행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사랑방이 앞으로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최만제: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지원 받을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다. 보호자는 조금만 문제가 보여도 큰소리를 치고 종사자 탓을 하며,

심하면 샷대질에 폭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종사자에게 “잘 참았다”라고 말하는 것 뿐 어쩔 도리가 없다. 종사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인권사랑방이 해 주길 바란다.

이상구: 시설 내에서 종사자 본인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그냥 하소연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상담과 심리치료, 멘토연결, 시설장과의 대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줬으면 한다.

김경미: 인권 사랑방 운영이 ‘권리’, ‘조정’, ‘치료’라는 세 가지의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인권문제가 사건화 되면, 인권사랑방이 앞서서 할 역할은 거의 없다. 조사는 권한 밖의 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정부분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문제 발생시,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설장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유급휴가와 같은 대안적 방법도 고민해 주길 바란다.

이응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는 갑을의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인권침해의 기본적인 예방책은 종사자와 거주인의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인권침해가 생기면 경찰조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건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 사전예방 구조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사랑방이 종사자를 보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 지난달 24일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에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주사회복지현장 인권 어떻게 지켜나갈까’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